

갤러리현대 6월의 전시

김 성 윤 Kim Sung Yoon

《Arrangement》

2019. 6. 26. 수 – 2019. 7.28 일 | 갤러리현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4 / T. 02-2287-3500)



〈Assorted Flowers in the White Porcelain Jar with Flowers and Gold Shapes〉, 2019, Oil on linen in frame, 139.5x103x4.5cm
이미지 제공: 갤러리현대

전시문의

갤러리현대 / 02-2287-3500 / www.galleryhyundai.com

www.webhard.co.kr ID: galleryhyundai2 / PW: 3500

[갤러리현대] – [6월 전시_김성윤] 폴더 안 자료 참조

기획팀 송애리 대리 02-2287-3527 / arsong@galleryhyundai.com

박혜미 사원 02-2287-3529 / hm.park@galleryhyundai.com

홍보문의

홍보팀 이정은 과장 02-2287-3540 / ce.lee@galleryhyundai.com

■ 전시개요

전시명: Arrangement

전시장소: 갤러리현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4)

전시기간: 2019년 6월 26일(수) – 7월 28일(일)

■ 전시 내용

작가의 시선으로 보는 '꽃을 꽂는 세 가지 방법'

고전주의 회화의 방법론적 재해석

자연과 기술, 이질적인 것에 대한 조화로움 선보여

인상주의의 아버지, 에두아르 마네의 마지막 16점의 꽃 정물 재현

갤러리현대에는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뛰어난 회화성과 주제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으로 주목을 받아온 작가 김성윤의 개인전 《Arrangement》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회화에 대한 연구와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얻는 방편으로 미술사적 배경을 활용하면서 그만의 독특한 기법과 작품의 소재를 찾아낸다. 이번 개인전에서 김성윤은 '화가가 꽃을 꽂는 세가지 방법'이라는 큰 틀 아래, 17세기 정물화 기법을 연상시키는 작품, 마네가 말년에 병상에서 그렸던 16점의 꽃 정물을 재현한 작품 그리고 동시대 미술에서 꽃 그림이 가지는 의미를 작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전시장 각 층에 배치하며, 이 시대 꽃 정물화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긴다.

작가 마이클 클라인 (Michael Klein, b.1980)의 작약 꽃 정물화의 영감을 받기도 한 김성윤은 물건이라는 물질이 꽃잎으로 변하는 성질적으로 감각적 변화의 순간을 구현해보고자 직접 꽃 시장에서 꽃을 고르고, 꽃꽂이를 하여 실제 정물화의 대상을 마주하고 경험한다. 김성윤의 회화에는 미술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삼고 특정 시대의 대가의 회화 작업을 본인의 창작 시발점으로 삼아 회화를 탐구한다.

김성윤의 작품 안에는 미술사적 배경이 담겨있다. 작가는 인상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에두아르 마네(Éduard Manet, 1832-1883)와 17세기 정물화의 대표 거장인 얀 브뤼헬(Jan Brueghel the Elder, 1568-1625), 얀 반 허이섬(Jan van Huysum, 1682-1749)의 꽃그림을 차용하여 꽃 그림을 동시대적 시점에서 재해석한다. 김성윤은 마네가 말년에 병상에서 제작한 꽃그림 16점과 나오는 동일한 꽃을 직접 꽂았다. 화려한 색감이 아닌 옅은 흑백으로 그려 아름답고 멜랑콜리한 작가만의 방식으로 마네의 작품을 오마주 한다. 이에 이어 네덜란드 회화 대가인 얀 브뤼헬과 얀 반 허이섬이 구축한 꽃 정물화의 특징인 과도한 화려함과 풍성함 역시 차용하였다. 브뤼헬과 허이섬은 개화 시기와 피는 장소마저 각기 다른 꽃들을 한 화면에 담아 시공간을 초월하였는데, 여기서 작가 김성윤은 이 부분을 동시대적으로 해석하여 구글에서 이미지를 찾은 후에 포토샵 같은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합성을 하고 재배열하는 프로세스적인 기법을 통해 시공간을 뛰어넘는다. 더불어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꽃병들은 작가가 실제로 사용한 파스타, 올리브 또는 소스 병을 재 활용한 것이며 액자에 각 로고를 장식하여 동시대 삶 또는 현재 작가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반영하며 꽃으로 대변되는 자연과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기술이라는 이질적인 것들 것 조화를 보여준다.

김성윤은 이전 개인전 《athlete》(2011), 《AUTHENTIC》(2013), 《DEAD MAN》(2014)과 마찬가지로 이번 《Arrangement》 전시에서도 소재를 선택한 후 이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모델이 필요할 경우에는 모델 섭외부터 연출, 소품 제작, 그리고 사진 촬영까지 직접 진행하는 단순히 고전주의 회화법을 재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작업을 선보인다.

■ 전시 구성

전시장 1층에는 작가가 고전주의 회화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회화 작품 8점을 선보인다. 김성윤은 구글에서 꽃 이미지를 수집한 후, 작가 본인이 그린 꽃 그림과 더불어 각종 미술사나 서적에서 수집 한 꽃을 한데 모아 기존 참고 이미지들보다 더 화려하게 구성하였다. 2층에서는 재 활용한 파스타, 올리브, 다양한 소스, 또는 잼이 담겨 있던 병에 꽃꽂이한 꽃을 그리고 거기에 각각의 병을 생산한 회사를 상징하는 로고와 색으로 액자를 장식한 작품 23점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지하 1층은 인상주의 대가 중 한 명인 에두아르 마네가 말년에 병상에서 그린 16점의 꽃 정물을 흑백으로 재 연출한 작품들로 꾸며진다. 각 층의 꽃 정물은 각기 다른 시간과 회화적 방법론을 재현하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물화 안에서 표현되는 시간과 장소, 기법 등을 다시금 흥미롭게 바라보도록 만든다.

“꽃은 흔한 대상이지만 꽃이라는 매개체로 꽤 많은 세상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 작가 김성윤

■ 작가 소개

김성윤은 1985년 생으로 국민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다. 2010년 대학교 재학 중 갤러리현대 원도우 갤러리에서 작품을 선보였고, 유려한 회화적 테크닉뿐만 아니라 주제에 관한 독창적 실험을 바탕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2011년 16번째 개인전을 통해서는 초기 올림픽 선수들의 초상 작품을 작가만의 언어로 유쾌하게 풀어낸 〈Authentic〉 시리즈를 선보이며 작품성을 인정 받기도 했다. 2014년에 선보인 〈DEAD MAN〉 시리즈에서는 젊은 작가가 겪는 과도기적 단절과 작품 전개와 동시대 회화 작가로서의 고뇌와 고찰을 그만의 언어로 풀어냈다. 이번 개인전은 갤러리현대에서 5년만에 갖는 개인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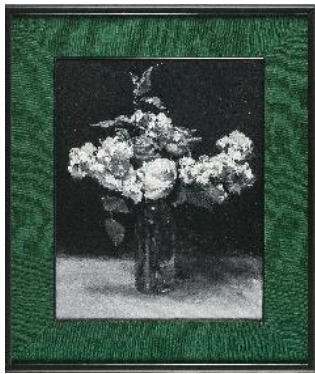
■ 작품 소개



Assorted Flowers in the White Porcelain Jar with a Blue Dragon, 2019, Oil on linen in frame, 143x119.5x4.5cm

〈구글 꽃꽂이〉

네덜란드 꽃그림의 대가 얀 브뤼헬(Jan Brueghel the Elder, 1568~1625)과 얀 반 허위섬(Jan van Huysum, 1682~1749)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지역과 피는 개화 시기가 다른 꽃들을 한 화면의 등장시킨다. 작가는 다양한 꽃의 이미지들을 구글에서 서치한 후 포토샵을 이용해 재배열한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화면 위에 그려진 꽃들은 시공간을 뛰어넘는다. 더불어, 도자 작가 유의정이 제작한 도자기를 화병으로 차용하여 현재 우리 시대 삶의 모습을 반영한다. 작가 유의정 도자 작품 위에 보이는 문양, 로고들은 동시대 문화적 혼종성 또는 삶을 반영한다.



Bouquet of Lilac, 2019, Oil on linen in artist's frame, 114.5x99x6cm

〈마네의 꽃그림〉

인상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에두아르 마네를 오마주하는 작품들로 작가는 꽃의 조합, 꽃을 꽂는 방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에두아르 마네가 말년에 병상에서 그린 16점의 꽃그림을 재현하였다. 김성윤은 이 16점에 나온 꽃들을 직접 구매하여 꽃꽂이를 하고 화려한 색감이 아닌 흑백으로만 그려 꽃의 형태와 이미지보다 흑백이 주는 음영의 차이를 부각해 마네로부터 시작된 모더니즘을 화면 안에 담는다.



Bouquet in a Barilla Jar, 2018, Oil on linen in artist's frame, 72x59.7x6cm

〈로고〉

내용물 없이 텅 비어버린 채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식료품 용기가 꽃병으로 등장하는 이 시리즈는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파스타, 잼, 올리브 등을 제조하는 식료품 회사 로고와 꽃 그리고 액자가 한데 어우러진 작품으로 진부한 그림 소재로 취급 받는 꽃에 시대적 의미를 부가하며 새로운 가치의 꽃 그림을 탄생시켰다. 이 연작을 통해 작가는 동시대 꽃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자본주의 시대에서 상업성을 대표하는 로고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 가치에 대해 되묻고 있다.

■ 주요 작품



〈Assorted Flowers in the Celadon Vase in the Shape of Nike Basketball〉

2019

Oil on linen in frame

139x113.5x4.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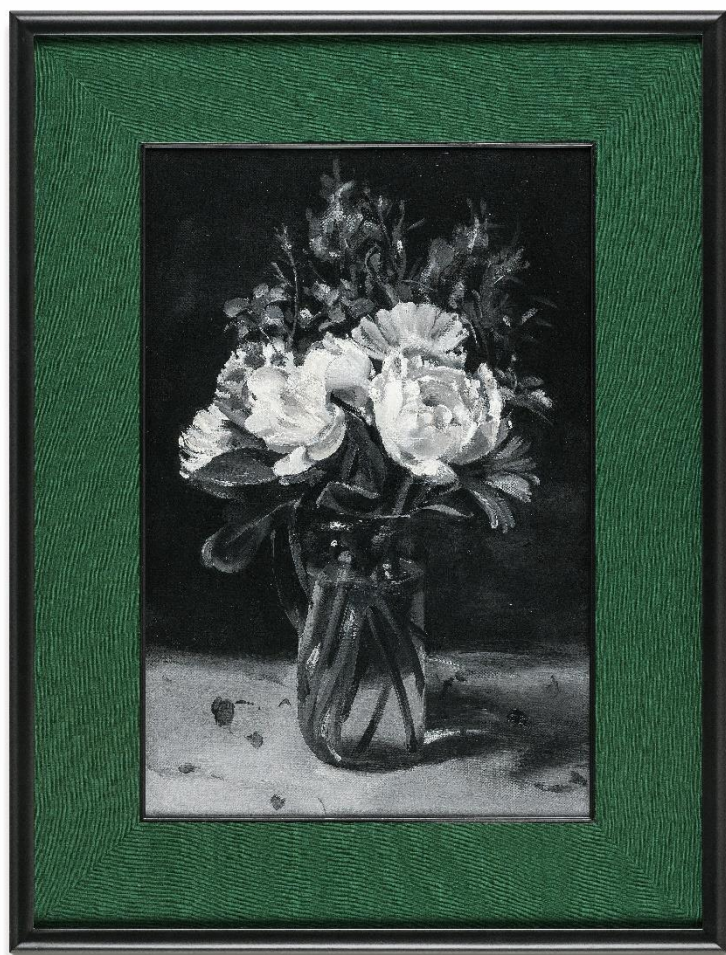


〈Flowers in the Celadon Bottle Patterned with Clouds, Cranes, and Mickeys〉

2018

Oil on linen in frame

111x80.5x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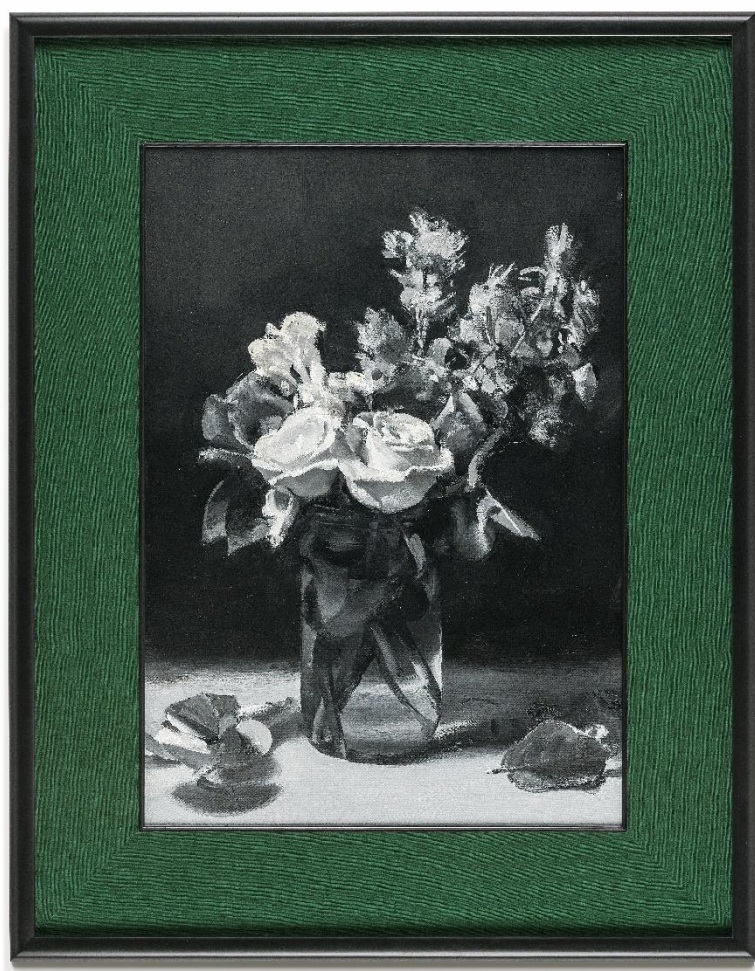


〈Flower Bouquet〉

2018

Oil on linen in artist's frame

121x92x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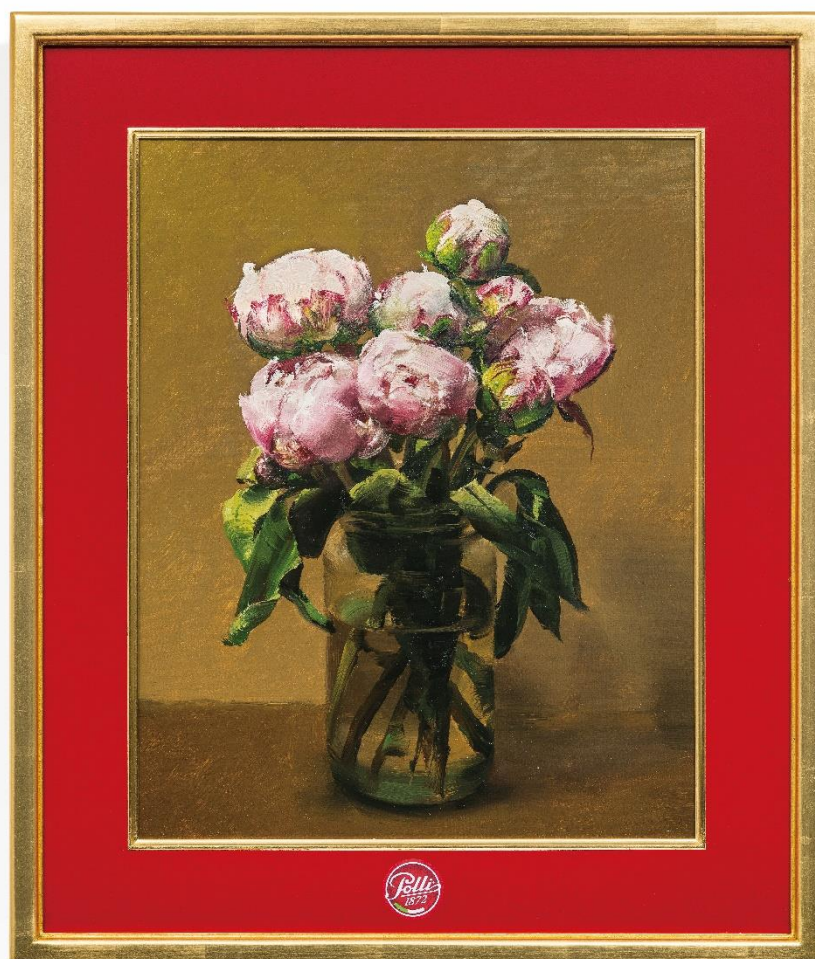


〈Roses and Lilacs〉

2018

Oil on linen in artist's frame

123x96.3x6cm



〈Peonies in a Pollo Jar〉

2018

Oil on linen in artist's frame

75x63.5x6cm



〈Tulips Petruzzelli Jar〉

2019

Oil on linen in artist's frame

79.5x64.5x6cm

■ 전시 서문

(*부분 발췌만이 가능하며, 일정분량 이상 사용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갤러리현대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꽃을 꽃는 화가의 세 가지 방법: 김성운의 Arrangement

기혜경

북서울미술관

디지털 이미지가 범람하는 시대에 김성운은 고전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구상회화를 제작한다. 그의 이전 개인전 <Authentic>, <Athlete>, <Earth, Bone, color>, <Dead Man> 을 통해 살필 수 있듯이 그는 그린다는 것에 천착하며 회화작가가 봉착하는 현실의 문제들을 직면해 왔다. 그것은 손쉽게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발달 시대에 손을 이용하여 직접 그린다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와 전통적인 회화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왜 재현하는가의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통상적으로 미술에서 기법은 작가의 개성을 드러내는 기교나 방법을 의미한다. 미술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 작가들은 모두 저마다의 독자적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법은 작가의 특성을 드러내는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작가에게는 서명과도 같은 기법에 대해 김성운은 새롭게 자신만의 것을 고안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전 시기 작가들의 기법을 인용하거나 차용하고자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인용, 차용, 전유는 동시대 미술의 창작 방법으로 용인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러한 전략이 새로운 것은 없다. 하지만 그가 전유하거나 차용하는 방식은 소재나 주제, 이미지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회화를 제작하는 테크닉적인 측면이란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김성운은 자신만의 기법 개발이 향후 자신의 발전가능성을 저해하는 폐쇄적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는 쉽게 자기 복제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상황에 대한 작가로서의 고민의 지점을 드러낸다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두 번의 개인전 <Authentic>과 <Athlete>을 통해 작가는 19세기 부유층의 초상화를 제작하였던 인물화가 존 싱어 사전트(John Singer Sargent, 1856-1925)의 기법을 인용하여 근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의 인물화를 제작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작가는 근대올림픽 아카이브

에 근거하여 올림픽 참가선수들의 복장 및 소도구를 제작하고, 그것을 사진촬영한 후, 19세기 말 인물화가의 기법으로 제작하였다. 시간을 교차편집하는 이와 같은 작업방식은 비록 작가가 기법적인 면에서 독자적인 특성을 드러내지 않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 - 즉, 19세기 부유층의 초상화가로 유명했던 존 싱어 사전트가 유사한 시기 근대 올림픽에 참여하였던 올림픽 종목 선수를 그렸다면? -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모색을 통해 ‘김성윤식 특성’을 형성하고 있다.

1. 통념을 비트는 검은 꽃

김성윤은 자신의 세 번째 개인전이자 존 싱어 사전트와의 작별을 고하며 새로운 작업을 예고하였던 <Dead Man> 시리즈를 통해 타인의 기법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였지만 미흡함으로 남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죽음을 앞둔 작가의 말년 양식에 묵시록적 비전을 결합하여 풀어내었다. 이처럼 죽음을 앞둔 작가의 말년 양식에 대한 관심은 이번 전시에도 이어지는데 건강의 악화로 죽음을 앞둔 에두아르 마네(Edouard Manet, 1832~1883)가 제작한 꽃 정물을 이번 전시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 그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1935~2003)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식이 깨어있고, 기억으로 넘치며, 현재를 대단히 예민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예술가의 말년의 시선이 반영된 ‘말년의 양식’은 예술가가 몰락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깨달음으로써 발현된다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말년 양식은 마네가 제작한 16점의 꽃 정물에서도 발견되는 바, 마네는 생명력이 응축된 한 순간을 독창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고요하면서도 섬세하고 망설임 없는 붓터치를 통해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마네는 순간의 역동성을 극대화시켜 꽃의 신선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시기 마네의 작업은 그가 시작한 모더니즘의 방향성을 그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드러낸다. 작지만 강렬한 생명력을 응결시킨 꽃 정물은 생생한 구상적 이미지이면서도 동시에 붓 터치와 조합임을 살필 수 있게 한다. 즉, 이미지로써의 꽃 정물이 드러내는 완벽한 생명력과 더불어 화면 위의 얹혀진 붓 터치들의 조합으로서의 회화면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작업은 모더니즘 회화의 시작을 알린 마네의 정수를 볼 수 있게 한다.

회화는 평면 위의 얹혀진 물감의 조합임을 드러내었던 마네의 꽃 정물이 꽃이 갖는 생명력

을 영원히 응결시키는 빠르고 예민한 붓터치와 영롱하면서도 화려한 색채에 기초하였다면, 마네의 꽃 정물에 대한 오마주라 할 수 있는 김성윤의 화면은 생생함 보다는 중후함으로, 순간을 영원으로 응축하기 보다는 삶과 죽음 사이 어딘가에 놓인 무시간성으로, 생명력 있는 이미지라기보다는 화면 위의 얹혀진 물감과 붓터치들을 강조한다. 이는 일체의 색을 배제하고 흑백의 톤 조절만으로 꽃 정물을 제작함으로써 얻어낸 효과라 할 수 있다. 이들 흑백으로 그려진 작품들은 꽃 정물은 화려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우리들의 선입관을 비틀며, 선배 작가가 개척한 길을 따르는 후배 작가의 작가로서의 자세를 드러낸다. 마네가 말년에 제작한 16점의 꽃그림과 동일한 종류의 꽃을 꽃는 것에서 출발하는 이 작업은 임종을 앞둔 화가의 말년 양식에 대한 오마주이자, 흑백으로만 그려진 꽃 정물이라는 점에서 꽃의 형태와 이미지 보다는 흑백의 베리에이션과 붓 터치를 부각시킴으로써 마네로부터 출발한 모더니즘의 화두를 화면 전면에 포진시킨다. 이는 김성윤이 <Earth, Bone, color>에서 색 샘플의 색과 형상을 제시했던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자 회화의 본질을 묻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교차하는 혼성적 꽃꽂이

이번 전시가 마네의 말년양식을 차용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면, 작가는 꽃을 꽃는 다른 방식을 17세기 네덜란드의 꽃 정물에서 찾고 있다. 화려하면서도 풍성한 17세기의 꽃 정물을 차용한 이 작품들은 네덜란드 꽃그림의 대가 얀 브뤼헬(Jan Brueghel, 1568~1625)과 얀 반 후섬(Jan van Huysum, 1682~1749)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이들의 작업이 보여주는 과도한 화려함과 풍성함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피는 개화 시기가 다른 다양한 꽃들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화면에 등장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실제처럼 그려진 각각의 꽃이 드러내는 사실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꽃 정물이 꽃의 재현보다는 꽃을 통해 다른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당시 꽃 정물은 해외 교역을 통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네덜란드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드러내며 부의 척도를 가늠하는 도구이자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방편으로 작동하였는데, 그를 위해 화면위의 꽃무리는 임의로 조합된 산물이다. 자연조건의 극복이란 면에서 지금보다 훨씬 제약이 많았을 17세기의 꽃 정물 작가들은 계절을 달리하며 피는 다양한 지방의 꽃을 하나의

화병에 꽃기 위해 본초서와 꽃 그림집 같은 식물지를 활용하였다.(이한순, 17세기초 네덜란드의 꽃정물화: 16세기 식물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p 345) 이러한 17세기 꽃 정물화가들의 제작 방식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리즈에서 김성윤이 보여준 작업방식과 비견된다. 개화 시기는 물론 피는 지방조차도 다른 꽃들을 작가는 인터넷 이미지 서치를 통해 모은 후, 그래픽 툴을 이용하여 재배열하고 그것을 하나의 화병에 꽂아 시공간을 뛰어넘도록 제작한다. 또한, 17세기의 작가들이 해외무역을 통해 수입한 중국도자기를 화병으로 활용함으로써 부의 과시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던 것처럼, 김성윤은 동료작가 유의정이 제작한 도자를 통해 자신이 보여주고자 한 의미를 드러내며 해석의 단초를 제공한다. 전통적인 도예기법을 사용하면서도 문화적 혼성에 대해 고민하는 유의정은 도자의 문양이나, 로고, 형태를 통해 동시대의 문화적 혼종성 및 삶의 방식을 기록한다. 이러한 의미를 담지하는 유의정의 도자를 화병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김성윤이 17세기의 작가들처럼 자신의 작업이 우리시대의 삶의 일단을 반영하는 기재이기를 염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작가는 시공간이 좁혀지며 만들어진 혼성적 화병과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가상의 꽃다발,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인위적인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실제없이 뒤섞이는 문화의 혼종성을 호화롭고 풍성한 이미지 너머로 탈각된 의미들을 끌어올려 제시하고 있다.

3. 키치화된 꽃꽂이

17세기 네덜란드의 꽃 정물이나 마네의 말년 꽃 그림을 차용한 ‘꽃을 꽂는 세 가지 화가의 방식’이 마지막으로 도달한 시리즈는 그 어느 앞선 시기의 작가가 아닌 작가 자신의 일상에서 시작한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작가는 자신의 일상 중, 꽃 정물을 제작하기 위해 꽃시장에 가서 꽃을 갖추어 사고, 그것을 보기 좋게 꽂고 조명과 배경을 설정하고, 그것을 그려나가며 겪는 일상 속 불편함을 작업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한 순간의 꽃이 갖는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화면 위로 영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끝맺는 시점 사이의 어디 인가를 화면위에 안착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작가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손의 맛을 기꺼워한다. 하지만 작가에게 있어 그러한 그리기로서의 과정이 주는 즐거움과는 달리 동시대 일상에서 꽃이나 꽃정물이 갖는 위상은 고민의 지점을 제공한다. 즉, 정성스럽게 골라온 꽃이 꽂힌 유리병이 실상은 식

자재를 담은 대형 식품사의 포장용기라는 점은 앞선 시기의 꽃 정물과 동시대의 그것이 드러내는 서로 다른 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꽃과 꽃 정물의 소통 방식을 작가는 직접 작품의 형식적 틀로 변환시킨다. 오래된 회화의 액연방식을 연상시키지만 정작 꽃 정물의 화면을 둘러싼 프레임 매트는 화병으로 쓰인 유리병을 제공한 식료품사의 색상이며, 화면 하단의 프레임 매트에 쓰여진 휘장 역시 해당 식료품사의 로고이고, 더 나아가 금빛으로 마무리된 액자는 키치적이며 조야한 빛을 발하고 있다. 그 결과, 순수한 그리기의 결과인 화면의 꽃 이미지는 그것을 둘러싼 와글거리는 동시대 자본의 기호로 인해 생경하게 다가오게 된다. 이쯤 되면 비록 작가는 수공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며 꽃 정물을 제작하였을지라도 정작 작업의 주인공은 꽃이라기보다는 꽃을 담은 유리병과 그것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자본의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전도는 정작 보여지는 것과 실재가 다름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다.

김성윤은 존 싱어 사전트의 인물화 기법을 차용한 작업이나, 스승인 김봉태의 작업 댄싱박스에서 연원한 작업, 데드맨에서 보여주었던 선배작가를 좀비화하여 제작한 인물화 등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선배의 작업이나 미술사적으로 이미 정립된 작가의 작업을 창작의 출발점으로 삼아 회화를 통해 무엇을, 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찾아나가고 있다. ‘꽃을 꽃는 화가의 세 가지 방법’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전시에서 김성윤은 지난 4번의 개인전과 비교할 때, 장르면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이는 꽃정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실상 작업을 관통하는 기본적 개념을 유지하며 회화에 대한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꽃 정물화는 지금 시대에 왜 다시 꽃 그림인가라는 의구심을 넘어 이들 장르가 미술사 속에서 쌓아온 관행과 기록, 역사를 모티브삼아 동시대의 삶의 궤적과 일상을 살필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작가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 시대라도 손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담지하는 즐거움과 그것을 통해 무엇을 왜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작가 약력

김성윤 (1985년생)

2011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전공 졸업

개인전

- 2019 《Arrangement》, 갤러리현대, 서울
- 2017 《Earth, Bone, Colour》, 갤러리퍼플, 남양주
- 2014 《DEAD MAN》, 갤러리현대, 서울
- 2013 《athlete》, 스페이스 캔, 서울
- 2011 《AUTHENTIC》, 16번지, 갤러리현대, 서울
- 2010 《김성윤 展》, 갤러리현대 윈도우 갤러리, 서울

단체전

- 2018 《SUB FRAME》, 이유진 갤러리, 서울
《GPS 3기 입주작가전》, 갤러리퍼플, 남양주
《아트 보네이도 콜라보레이션 전시회》,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17 《영남청년작가전: 봄의 제전》,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초안》, 175갤러리, 서울
- 2016 《블랙 더 정글》, 스페이스 K, 과천
《아트 네비게이터》, 갤러리퍼플, 남양주
- 2015 《회화 - 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블루메미술관, 파주
《1/2》, 시청각, 서울
《You, the text》, 빙앤땡, 서울
《읽어요 그림 보여요-글과 그림 사이》,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4 《첫만남, '텅 빈' 우정의 시작》,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카데고-라이징》, 갤러리 175, 서울
《오늘의 살롱》, 커먼센터, 서울
- 2013 《구·체·경: 힐링 그라운드》, 소마미술관, 서울
- 2012 《Soul of Seoul》, galleri s.e, 베르겐, 노르웨이
《Convergence》, 갤러리바톤, 서울
《돌과 땅》, 스페이스 꿀, 서울
- 2011 《Do window vol.3》, 갤러리현대, 서울
《중앙미술대전》, 예술의 전당, 서울
- 2009 《아시아프 (아시아 대학생·청년작가 미술축제)》, 옛 기무사 건물, 서울

수상

- 2011 중앙미술대전 선정 작가

레지던시

2016- 갤러리퍼플 스튜디오 2, 3기 입주작가

2014 인천 아트 플랫폼